종교간 대화 · 화해운동 확산

URI, 18일 브라질서 첫 세계회의 개최

◇종교간의 대화는 상이한 전통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고행과 명상을 중시하는 이슬람 신비주의인 수피명상(Supsm)을 체험하고 있는 URI 회원들.

URI는 ———

URI는 종교간 협력을 증진시키고, 종교로 말미암은 폭력과 전쟁을 종식시키며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을 위한 평화와 정의 및 치유의 문화를 조성하려는 비영리 민간단체다. URI는 1995년 UN 창설지인 샌프란시스코에서 UN창립 50주년을 기념, UN과 같은 종교적 세계평화기구의 필요를 공감한 종교지도자들에 의해 발기됐다. 그 후 전세계에 190개 지부를 조직하고 2000년 6월 26일(UN헌장 조인일) 피츠버그에서 헌장을 조인한 범종교 세계기구다.

60여 국 80여 종교 및 정신적 전통이 URI에 참여하고 있으며, 100만 여명이 200여 URI 평화 프로젝트에서 활동하고 있다.

미국의 정치과학자 새뮤얼 헌팅턴은 "21세기는 더 이상 이데올로기나 국가간의 정치적 대립이 아니라 '문명의 충돌'에 의해 특징지어질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다. 과거 시대를 지배했던 '이데올로기의 적'이 사라지자 이념대립에 쏠렸던 에너지가 종교로 쏠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전세계에서는 종교로 인한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고 종교간의 대화와 이해, 또는 화해를 모색하는 이른바 'Interfaith movement', 또는 'Inter religious movement'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전쟁 80% 종교와 연관" 모순 극복 다짐

'리오+10회의'와 연합 환경문제 공동 대응

세계종교연합선도기구(URI, United Religions Initiative) 등 '종교간 대화모임'들의 태동은 전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약 80%가 종교와 연관된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종교인들이 이런 모순을 극복하고, 종교본연의 모습을 회복하자는 각성운동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URI가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브라질 뉴오데자네이로 글로리아 호텔에서 갖는 첫 세계회의의 주제인 '성스러움의 나눔과 세계에 대한 봉사'는 이 단체의 성격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번 리오 총회는 '성스러움의 나눔과 세계봉사'라는 주제가 지속적으로 천명되고 구체적으로 실천되도록 연구개발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총회 기간에 다양한 종교 전통이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축제도 마련하고, 종교간 이해의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프리카의 요하네스버그에서 8월 하순에 열리는 '리오 플러스 텐(Rio+10)' 환경회의와도 연합해 지구촌의 환경문제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에서 9개 지부를 가진 URI Korea(대표 진월스님, www.uri-korea.org) 회원들도 참석한다. 진월(조계종 국제국제교류위원회 부위원장) 스님은 "종교간 대화모임들의 평화운동과 공동선(善)의 추구가 지구촌의 평화를 정착시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해외불교 담당=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40여만 인구 가운데 절반이 불자인 브리야트공화국에 국제불교센터가 건립돼 불교 붐이 일어날 전망이다. 7월 15일 열린 기공식에 참석한 진월스님(오른쪽).

브리야트국 국제불교센터 기공

진월스님, 현지스님들과 불교교류 의견 나눠

구 스련연방에 속한 브리야트공화국에 국제불교센터가 건립된다.

조계종 국제교류위원회 부위원장 진월스님은 브리야트 불교계의 초청으로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울란우데를 방문해 미륵불 축제법회와 국제불교센터 기공식에 참가했다. 기공식에는 태국, 러시아, 몽골 등 스님들이 모여 불교공동체 건설을 위해 발원하기도 했다.

진월스님은 방문기간 중 브리야트불교 최고지도자인 함블 라마와 도르지 라마 등 현지 스님들과 대화를 갖고 불교교류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진월스님은 "이 국제불교센터가 브리야트 원주민들의 오랜 불교전통을 잇고 한국 등 선진불교와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라며 한국불교계의 지원을 호소했다.

"티베트 헌법 완성, 의회 큰 권한

린포체 총리, 정치독립보다 문명복구 더 중요"

◇삼동 린포체 총리.

"다가올 4년 동안 현대 민주제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티베트 망명정부의 삼동 린포체 총리는 최근 뉴욕타임즈와의 회견에서 "14대 달라이 라마의 사후를 대비해 전세계 티베트인들을 준비시키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여름 티베트 망명정부의 초대 총리로 선출된 삼동 린포체는 "성하께서는 지도체제의 연속을 제도화하기 위해, 티베트 헌법을 완성했으며 망명 의회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다"며, "헌법은 성하가 육신으로 존재하지 않을 경우, 성하의 업무를 잠정적으로 처리할 섭정의회를 구성하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어 큰 지도력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삼동 린포체는 또 "중국으로부터의 정치독립은 중요하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티베트 문명을 복구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티베트는 단지 한 국가가 아니라 문화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독특한 세계의 유산이란 것이다.

현장스님, 바미얀대불 완성 못본채

大唐서역기에 소개했을 것

삼장법사로 알려진 중국의 현장(玄奘) 스님은 실제로 바미얀 석불이 완성된 것을 보지 않은 채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에 석불을 소개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본 주오(中央)대학의 다나베 가쓰미(田邊勝美, 서아시아 미술사 전공) 교수는 7월 29일 도쿄에서 열리는 아프가니스탄 문화재 국제심포지엄'에서 이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보도했다.

현장 스님은 630년 봄 바미얀을 방문해 동서쪽에 있는 2개의 석불을 보았다고 알려져 왔다. 그러나 다나베 교수는 동쪽 편의 높이 38m 불상 천장에 그려진 태양신 도상(圖像)이 629~630년에 나타난 것으로 볼 때, 현장 스님이 불상을 직접 봤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 현장 스님은 〈대당서역기〉에 동쪽의 석불이 놋쇠로 만들어졌다고 기술하고 있지만, 실제는 재료가 돌이었다는 점도 이런 추론을 뒷받침한다고 다나베 교수는 주장했다.

일지 스님의 **감춰진 불교이야기**

34. <육조단경>의 고향을 가다

지난 7월 9일 홍콩에서 중국비자를 얻은 나는 11일 오전 구광철도의 홍흠역에서 출발하는 광조우(廣州)행 기차에 올랐다. 홍콩에서 심천을 경유하여 광동성의 넓은 평원으로 달려나온 기차는 작렬하는 중국남부의 햇볕 속을 달린지 3시간만에 광조우역에 도착했다. 이번 광동성 여행에서 나는 6조 혜능(638~713)의 설법지이자 입적지인 광조우의 광효사(光孝寺)와 샤오콴(韶關)의 남화사(南華寺) 또 5조 홍인으로부터 "회(懷)를 만나면 머물고 회(會)를 만나면 곧 숨으라(逢懷則止 遇會則藏)"라는 지시를 듣고 혜능이 15년간이나 사냥꾼들과 함께 살았다는 쓰후이(四會), 화이지(懷集)등 〈육조단경〉속의 지명을 확인하고 그 현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까지 이 지명들은 광조우를 중심으로 한 광동성 남부의 교통요지로 연결되어 있으며 모두 급속하게 도시화되어가는 중이다.

〈육조단경〉에 수록되어 있는 이 이야기에서는 어딘지 고전적인 무게와 품격이 느껴지지만, 오늘의 광효사는 광조우 시내의 지하철을 타고 도착할 수 있는 도시 변두리의 퇴락한 절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현재 광효사의 사역(寺域)은 상당하게 보존되고 있지만 절 주변은 아파트와 남루한 상가로 둘러싸여 있어서 〈육조단경〉속의 품격은 사라지고 없었다. 이곳 광효사는 어쩌면 예전에는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닌 그대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라는 심동(心動)의 법이 설해질만큼 맑은 바람이 부는 절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재 중국 남부의 급속한 도시화는 선어록 속의 도량들을 모두 도시변경의 초라한 관광지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혜능의 입적지이며 유해가 보존되어 있는 샤오콴의 남화사 역시 광동성 북부의 공업도시 샤오콴시의 언저리에 간신히 남아있었다. 이제 중국 선종의 유산들은 깊은 산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산업화되어버린 도시의 변경속에서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다.

선승 · 선어록현장 광효사 주변 곳곳에 널린 빨래 · 음식냄새 등 중국 서민들의 생활 녹아 있어

7월 12일 나는 혜능이 15년간의 은둔생활에서 나와 정식으로 수계를 하고 설법을 시작한 법성사(法性寺)를 답사했다. 〈육조단경〉에서 광주 법성사라고 적고 있는 절이 바로 지금의 광조우 광효사이다. 〈육조단경〉에 의하면 혜능이 산에서 나와 광주 법성사에 도착하자 마침 인종(印宗)법사가 〈열반경〉을 강의하고 있었다. 그 때 두 학인이 뜰에 서서 바람에 펄럭이는 깃발을 보고 이야기한다. 한사람은 '바람이 움직인다'라고, 또 한 사람은 '깃발이 움직인다'라고 말하며 끝없는 토론을 하고 있었다. 혜능은 그 두 사람에게 말했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오직 그대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혜능의 이와같은 지적에 법성사의 대중들은 놀랐다. 인종법사는 혜능을 윗자리에 모시고 물었다. '행자님은 참으로 비상인(非常人)이십니다. 내 듣건대 황매산의 법이 남방으로 내려왔다고 하더니 행자님이 바로 그 분이 아니십니까?' 여기서 혜능은 정식의 출가절차를 받아 혜능선의 세계를 본격적으로 펴게 된다.

광조우 지하철 서문구(西門口)역에서 내려 광효사에 이르는 광효로 거리는 그야말로 소박한 중국 서민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준다. 곳곳에 널어놓은 빨래와 음식냄새, 아이들, 소음, 이방인의 눈에는 이 거리가 마치 60년전의 사진을 보는 듯한 옛 중국서민들의 삶이지만 분명 여기에는 중국선의 본질을 상기시키는 그 무엇이 있다. 그것은 조바심내지 않고 유유히 태평하게 살아간다는 것이다. 이점에서 나는 중국선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본다. 중국선은 본래 대륙적인 농경문화의 산물이었다. 사람들은 해가 뜨면 해와 함께 일어나서 대지를 갈아 농사를 짓고 해가 지면 해와 함께 잠이 드는 자족적인 삶의 표현이었던 것이다. 그 자족적인 농경문화는 이제 중국선의 토양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삶은 계속되어지는 것이며 선어록이 설해진 현장, 선승이 살다간 현장을 확인하는 이와같은 작업은 비대하고 의미없는 관념의 나열이 아니라 이처럼 살아있는 선 그 자체의 살아있는 인간상을 탐구하는 일인 것이다.

▩경학회 회주

백중기도 및 영가천도 법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기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타 큰스님의
생활 속의 기도법

여러 가지 상황의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4×6판 / 값 3,500원

일타 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 스님 자신과 도반 · 선배 · 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 성취 영험담 52편을 모아 엮었습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우룡 큰스님의 금강경 강설집!

생활 속의 금강경

영가의 바른 천도를 원하십니까?
깨달음의 마음,
지혜로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고자 하십니까?

영가천도를 위한 독경용으로 으뜸가는 금강경!

이제 금강경을 공부해 보십시오.

시대와 종파를 초월하여 불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금강경 속에 영가천도의 비결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생활 속의 금강경』은 그토록 어렵다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우리의 생활에 접목시켜 쉽고도 재미있게 풀이한 책입니다.

뜻을 알고 독경을 하면 그 공덕은 더욱 커지는 법!

이제 『생활 속의 금강경』을 통해 집안의 영가를 천도하고 우주에 가득찬 지혜와 영광과 행복을 가득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신국판 / 304면 / 값 6,000원

"영가는 어떻게 천도하나요?"

우룡 큰스님의
영가천도

4×6판 / 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 · 사경천도법, 사십구재,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과 방법을 우룡 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이 염불이 극락세계의 문을 엽니다.

미타신앙 · 미타기도법

미타기도법은 영가님들께
영원 생명과 무량한 빛을 안겨줍니다.

이 책에서는 아미타불의 참모습에서부터 극락의 여러 가지 측면, 칭명염불 • 오회염불 • 관상염불 • 천도염불 등의 각종 염불수행법, 천도를 하는 가족의 자세 등을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참회 · 참회기도법

맺힌 것을 풀고 푼 것을 더욱
원만하게 이끌어 가는 묘법이 참회!

이 책에는 업장과 참회, 가까운 이를 향한 참회, 절을 통한 참회, 참회염불, 참회행자의 마음가짐, 이참법과 대승육정참회 등 참회의 참된 의미와 여러 가지 참회 기도법, 참회영험담을 상세하게 담았습니다.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지장신앙 · 지장기도법

영가천도의 보살인 지장보살!
그분은 영가천도뿐 아니라
업장참회와 무한행복
대해탈까지도 능히 안겨줍니다.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함께 영가천도를 비롯하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백중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지장보살본원경
부록 / 지장보살예찬문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 예참,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책. 각 장 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영가천도 · 업장소멸 · 소원성취 · 향상된 삶을 이루게 됩니다.

김현준 편역 / 신국판 / 값 5,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 587-6612~3 · 팩스 : (02) 586-9078